

## 문화콘텐츠로서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언\*

- 작가 박경리와 작품 『토지』가 기념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김예니\*\*

### 차 례

1. 의례적인 기념, 넘어서기
2. 문학관의 주제의식과 공간스토리텔링
3. 문학관 공간스토리텔링의 현재와 미래
  - 1) 문자의 이미지화와 전시 스토리텔링 : 박경리 문학공원
  - 2) 로컬리티와 관람객의 미적 체험 : 박경리 문학관
  - 3) 작가의 생애와 지역 스토리텔링 : 박경리 기념관
4. 문학관과 문학

### ■ 국문 요약

의례적인 기념을 넘어 진정 문인과 그의 업적을 기념하려면 특정 문인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멈추고 로컬리티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스토리텔링으로부터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 현재 건설했던 문학관들의 공간스토리텔링이 좀 더 문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096)

\*\* 성신여대 강사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해 한 작가, 한 작품이 여러 곳에서 기념되고 있는 박경리와 소설『토지』의 문학관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의 ‘문학의 집’은 소설『토지』의 스토리텔링을 기획함에 있어 선별과 압축, 그리고 비유적 이미지화를 통해 긴 장편 소설을 효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전시 스토리텔링 특유의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의 생애나 유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보면 많은 자료를 나열하여 보여주는 것에 멈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 자료를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흥미를 자극받기 어렵다.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역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있는 자료들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시적으로 당대 역사적 상황, 조건과 함께 설명하지 못하면서 많은 자료의 보관과 전시에 머문 점이 아쉽다. 하동의 경우, 박물관을 둘러싼 환경, 특히 드라마(토지)의 촬영지를 품고 있고 실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전경을 가지고 있어 문학관 외적 환경이 보여주는 공간 스토리텔링의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잘 살릴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의 경우, 어느 문학관보다 ‘통영’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문학관으로서 다른 문학관과의 차별점은 박경리의 대표적인 『토지』 외에 다른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전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설『김약국의 딸들』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는 ‘통영’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전시 스토리텔링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테마를 ‘작가와 통영’과 같은 주제로 설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공간 스토리텔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무엇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려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음 아니며 기획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이 대답을 어떻게 이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필요하고, ‘테마’가 있어야 하고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가 나누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공간스토리텔링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문학관, 기념관, 박경리 문학공원, 박경리 문학관, 박경리 기념관, 토지 문학관, 최참판댁

## 1. 의례적인 기념, 넘어서기

중이책의 소비가 줄고 출판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 문학과 문학연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대문학의 관심이 문학장(場)의 확장을 통한 대중적 소통의 모색으로 옮

겨가고 있고, 비평과 문학연구 역시 기존의 종이책을 원텍스트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매체의 스토리텔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통해 문학이 제공하는 원천소스가 어떤 매체를 통해 스토리텔링(storytelling)되어 대중에게 어떤 새로운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지 활발하게 연구되는 실정이다. 이런 변화는 문학이 단순히 학문에 갇히지 않고, 기존의 장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문학계가 느끼는 위기의 징후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일환이라 하겠다. 문학이 제공한 원천소스가 건축과 미술, 음악과 연극, 영화와 만화, 게임산업과 관광이라는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가 타 학문과의 교섭을 통한 새로운 활력과 문제의식, 새로운 미적 체험을 생산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문학관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와 문학계의 필요가 만나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다. 문학관 건설 초기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마다 문학관이 우후죽순 건설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립, 공립, 사립 문학관을 모두 합하면 110여 개의 문학관이 건설된 상황이다. 여전히 ‘문학관’의 개념을 보다 학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2018년 8월에 제정된 문학진흥법 제2조 5항에는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문학관 등록제를 통해 문학관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려 하고 있다.<sup>1)</sup> 이전에는 많은 문학관들이 지역 출신의 문인과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학관 형태의 건축물과 공간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을 할애했다면, 현재 문학관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향후 문학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과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학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문학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1) 박효주, 「박물관 등록제도와 비교를 통한 문학관 등록제도 검토」, 『호남학』 67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회, 2020.6. 30-33쪽.

그리고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런 조건 속에서 현재 문학연구가 직면한 질문이 있다면, ‘문학관’의 중심에 ‘문학’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문화콘텐츠의 거점이고, ‘문화적 기억’이 전승되는 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지금 현재 문인에 대한 의례적인 기념을 넘지 못하고 문학관의 핵심에 ‘문학’이 아닌 문학관이라는 외형적인 문제가 우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문제다. 물론, 문학관 논의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문학관이 대중과 어떻게 더 가깝게 소통하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관을 사고한다면, 문학관은 문인과 작품 관련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시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문학관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립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문학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문인과 작품이 기념되는 방식, 공간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문학관의 주제의식과 공간스토리텔링

지금까지 문학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문학관이 가진 장소성이나 로컬리티, 그리고 문학관이 제공하는 스토리텔링과 문학교육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건축학, 박물관학, 교육학, 지역학 등 다양한 학문적 교섭이 이뤄지는 가운데 문학관에 대한 문학연구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인문학적인 성찰, 결코 놓칠 수 없는 문학적 가치생산에 집중하며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주로 문학관이 당대 역사 문화적 조건과 유기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면서 문

인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채, 문인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기획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관이라는 건물 자체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는 문제나 전국의 많은 문학관들이 지역 축제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주로 제기하면서 향후 문학관이 나가야 할 방향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오태영<sup>2)</sup>은 기념의 대상을 특화하고 특정 문인의 ‘이상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전시를 통해 나름의 권위를 획득하려는 문학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문학관 스토리텔링을 기획한 의도와는 다르게 수용자들은 문학관의 공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욕망을 통해 문학관의 질서와 문법을 해체한다고 말했다. 문학관이라는 지역에 재현된 이질적인 시·공간 속에서 문학관 이용자 개인들은 상실되었다고 여겼던 것과 조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노스텔지어를 소비하게 되고,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의도나 목적과는 다르게 이질적인 수행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은 수용자 측면에서 해체적 읽기를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카니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나윤지<sup>3)</sup>는 ‘재현문화로서의 기념공간’인 문학관은 ‘문자’와 ‘장소’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적 기억’의 전승이 구체화되는 공간이라 전제하며 현재 문학관에는 문학의 활용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이 무척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문학적 소통을 통한 문학 향유의 효과가 문학관을 통해 이뤄지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예사 체계나 광역단위 거점 문학관의 지정, 박물관 등록과 평가인증제 시행,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미희<sup>4)</sup>는 문화

2) 오태영, 「문학관의 공간 조직화와 수행적 신체」, 『한국문학과 예술』 20,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3) 나윤지,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방안연구」, 고려대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문학관 문학콘텐츠와 타장르의 융합을 통한 재창조, 에듀테인먼트 융복합형 가치 전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문학콘텐츠의 거점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의 문학관이 가진 한계와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논의들의 핵심은 문학이 대중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하겠다.

역사학자 최호근은 그의 저서 『기념의 미래』에서 기념문화의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시와 기념공간과 기념물 연구가 의도분석에만 집중되면, ‘의도환원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기념관이 집중해야 할 것은 매체의 특성과 양식에 대한 설명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전유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매체적 특성과 양식을 살려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전유할 수 있어야 사회적 기억의 흐름을 너무 단선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기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념의 영역에서 의도와 최종 결과 사이의 간격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sup>5)</sup> 문학관의 경우, 처음 문학관 건립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애초 의도대로 문학관이 구현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멈춘 자리에서 여전히 그 방식이 유효한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다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문학관은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를 위한 기념인가?

기념의 대상은 분명 기념하고자 하는 작가와 작가의 업적일 것이다. 어느 문학관은 작가에 강조점이 있고, 어느 문학관은 작품에 강조점이 있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문학이 일궈낸 성취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조명이 있어서도 작가에 대한 지나

4)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5) 최호근,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11-13쪽.

친 이상화 없이 당대의 사회적 조건, 역사적 의미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전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적 미감은 대단한 작가의 엄청난 작품에 대한 존경심을 뛰어넘어 그 작품의 성취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주관적 감상이 인정됨과 동시에 여러 이용자들의 감상이 상호 교류될 수 있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매개로 문학을 통한 놀이의 장이 열리는 적극적인 소통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다시 최호근의 저서『기념의 미래』의 기념관에 대한 제언은 문학관 논의에 무척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기념관이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 사실관계에 충실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분한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전시의 공통점은 스토리에 있었다. 전시는 압축이고 각색이기 때문에 재현의 방식을 결정짓는 스토리가 중요한데 스토리에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방문객들은 그 스토리 속 인물들을 통해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스토리 속 인물을 동일시하며 전시에 몰입하게 된다. 이때 이야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기념관이 목적하는 바가 전시 내러티브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를 스토리텔링하는 목소리는 하나의 ‘집단적 개인’으로 대변되면 안 된다. 이야기는 다양성을 ‘경유해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인종, 종교, 세대, 국적, 교육수준 등 다양한 차이를 갖은 인물들이 동일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공감의 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대의 다양한 모습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때 표현되는 개인은 내부에 혼종성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인의 이야기는 다양한 중첩지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를 이상화 하거나 한 집단의 목소리, 가령 지자체의 목소리나 학자의 목소리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우세해지면 좋은 전시를 기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간의 내적인 혼종성을 부각했을 때 훨씬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결국, 전시가 도모하는 것은 공감을 통한 설득이기 때문이

다.6) 그리고 문학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통한 공감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작품을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문학관이 문인과 작품을 기념하는 방식은 일방적 자료의 제시를 통한 평가의 강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 문인과 작품에 대한 과도하게 경도된 평가는 관객과의 소통을 막고,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와 문학의 관계, 그리고 문학적 아름다움과 문인이 이룬 성취에 대해 관람객이 스스로 평가하고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스토리텔링이 기획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문학관의 주제의식과 공간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문학관이 작가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어떻게 만나려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문학관의 주제의식이 보다 보편적인 연구성과와 평가에 기반하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번 전시공간이 마련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기존 전시를 그대로 보존하는 문학관을 넘어서 문인과 작품에 대한 현재의 재조명, 관람객들의 흥미유발, 그리고 관람객과의 지적 교류와 미적 체험을 위해 스토리텔링이 새롭게 기획될 수 있어야 한다. 관람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테마’에 따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의 자료제시 방식을 뛰어넘어 문학관의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 그 스토리텔링이 좀 더 관람객을 염두에 두고 인문학적인 성찰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기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 자료가 없거나 너무 과도한 해석이 개입되는 것 모두 능동적인 관람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바로 전시에 있어 스토리를 부여하고 관람객을 고려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가

---

6) 위의 책, 393-398쪽.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전시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문학관을 둘러싼 공간적 특성과 문학관이 어떤 공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문제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 문학관이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의 문제이며 공간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문학관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박경리와 박경리의 대표작 『토지』가 기념되는 방식에 집중하려 한다. 박경리와 그의 대표작 『토지』는 원주, 하동, 통영에서 각각 문학공원, 문학관,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작가와 작품을 기념하고 있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공간들은 ‘문학관’이라는 범주에 포괄되며 이 공간들은 한국 문학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대작가인 박경리와 그의 대표작 『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하면서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모든 문학관들은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학관들이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문학관들은 분명, 같은 작가, 같은 작품을 기념하더라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스토리텔링의 차이를 만든다. 본고는 박경리와 그의 작품이 기념되는 방식을 통해, 각각의 문학관이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문학관의 주제의식과 공간스토리텔링이 각 문학관의 강조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대중과 무엇에 대해 소통하며, 문학관의 개성을 만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문학관을 통해 문학의 장(場)을 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3. 문학관 공간스토리텔링의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 문학관에 대한 논의는 문학관 일반에 대한 논의이거나 흥행에 성공한 몇몇 문학관들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중에서 박경리

와 박경리의 작품을 기념하는 문학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각 문학관의 로컬리티에 대한 분석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룬다.<sup>7)</sup> 본고에서는 원주, 하동, 통영에 각각 운영 중인 박경리 관련 문학관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각 문학관이 같은 작가와 작품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수용자의 입장에서 각 문학관이 보여주는 주제의식과 공간스토리텔링의 차이에 주목하려 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학관이 가지는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향후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전시의 핵심이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테마전시”는 박물관의 정보와 지식을 단편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이용자와 소통에 초점을 맞춘 전시라 하겠다. 이때 테마전시는 하나나 연속적인 테마를 보여주는 전시로 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데, 문화콘텐츠 관련 전시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sup>8)</sup> 이야기란 사건의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화

7) 문제원은 ‘박경리’라는 작가가 원주, 하동, 통영에서 각각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색, 로컬리티에 따라 지역문학관이 가진 위상과 지역에서 작가와 작품을 호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문제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그리고 이승윤은 문학관은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생물이며 원소스(One source)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통영, 원주, 하동에 있는 박경리 작가와 작품의 문학관들이 어떤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만나고 있나 분석하면서 개선점에 대해 제안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박경리와 작품을 기념하는 문학관들을 이어주는 콘트를 타워의 역할을 할 기구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승윤, 「문학관/문학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기획의 사례 연구—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48, 대중서사학회, 2018.)

마지막으로 김예니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가 문화콘텐츠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원주의 박경리 문학공원과 하동의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문화콘텐츠로서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예니, 「소설『토지』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 『돈암어문학』 제34집, 2018.12.)

8) 조진아, 「문학관의 공간스토리텔링 연구」, 중앙대학교 공연영상학과 미디어스토리

소 간 인과구조에 의한 논리적 연쇄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전시에서 중요한 것은 전시물들의 시대별 나열이 아니라 관객과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 주제가 명확한 하에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전시의 순서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문학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학은 박물관 전시와는 다른 문학관의 전시의도가 필요하고 문학관의 전시는 공간에 펼쳐지는 공간스토리텔링으로 조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학관에서 전시는 관람객에게 작가의 세계관이나 작품 세계를 전달하는 공간 연출 행위이다. 작가 개인의 생애와 문학적 성취, 그리고 작품으로 드러나는 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층이 있다면, 전시된 문학과 관람객 간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문학관의 전시는 역사박물관과는 다르게 단순 사건의 전시보다는 한 개인의 일생 혹은 다수의 작품이라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기에 시간별 나열이라는 방법을 넘어서서 작가의 서정과 서사의 세계, 세계관의 구축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고양되는 방식의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전시의 문제를 초과한다.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공간들, 문학관 주변의 공간들, 빛, 소리, 자연경관까지를 포괄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동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문학관의 공간을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시와 로컬리티, 그리고 공간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각 문학관이 가진 ‘테마’, 주제의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1) 문자의 이미지화와 전시스토리텔링 : 박경리 문학공원

원주의 박경리 문학공원은 동산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박

---

텔링전공 석사학위논문, 2020, 22쪽.

9) 위의 논문, 25쪽.

경리가 토지 집필에 전념했던 옛집을 포함하여 ‘문학의 집’, ‘북카페’ 등이 있다. 우선, ‘문학의 집’ 2층에 마련된 전시실의 전시 스토리텔링을 먼저 살펴보면, 시간순서에 따라 작가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작가의 사진들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작가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작가의 어린 소녀시절 사진부터 나이 들어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작가의 인생 여정이 다양한 사진 자료를 통해 제시되어 있고, 소설 『토지』의 육필원고와 만년필, 평소 쓰던 국어사전, 재봉틀, 손수 지어 즐겨 입으시던 옷과 농사지를 때 썼던 호미, 그리고 소설 『토지』의 여러 판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문학의 집’ 3층은 ‘<토지>에 들어서다’라는 제목의 공간으로 『토지』라는 방대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특별히 제작된 커다란 책 모형이 펼쳐진 형상으로 유리관 속에 총 5부의 구성에 따라 전시되어 있다. 이는 기획단계에서 큐레이션된 토지의 한 장면들을 디자인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비유적으로 『토지』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전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지만 사이사이 배치된 모니터들은 소설 『토지』의 한 장면을 구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었는데 한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제 서사가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시청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전시실의 모니터들이 현재는 거의 고장이 난 상황으로 모든 모니터가 꺼져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시정도 무겁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유리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1>처럼 성인의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에 커다란 책이 펼쳐져 있고, 책 주변에는 펼쳐진 책의 한 장면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 소재, 혹은 이미지들이 구현되어 커다란 유리관 아래 전시가 되어 있다. 『토지』라는 거대한 서사를 모두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장면에 대한 큐레이션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한, 전체 서사에서 대중에게 친숙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선별하여 압축한 것도 이



〈사진1〉 ‘문학의 집’ 3층 전시실(직접촬영) 〈사진2〉 ‘문학의 집’ 3층 전시실(직접촬영)

전시의 장점이다. 특히, 그 서사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문학의 집’이 보여주는 전시는 미학적인 욕구 역시 충족시키고 있다. 가령, <사진1>처럼 별당아씨와 구천이의 야반도주 이후, 최치수와 윤씨부인의 대치과정과 엄마를 찾는 서희의 패악질이 그려진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책 위에는 곳간의 문을 잠갔던 목직한 자물쇠와 이 자물쇠를 열었을 누군가를 상징하는 열쇠를 놓아 실제 서사 속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 이야기 속에 있었을 법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형상화를 통해 해당 장면을 무척 비유적이고 압축적으로 이미지화했다.

다음으로 <사진2>는 용정 화재 사건이 묘사된 장면으로 책이 불에 탄 것처럼 가장자리를 그을려 텍스트를 읽지 않은 사람도 이 오브제가 화재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오브제의 역할을 하는 책과 그 안의 텍스트가 만나 소설의 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이를 통해 이 전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 이야기에 따른 많은 양의 문자를 읽어야 한다는 피로도나 부담감을 줄이고 보다 문학 속 장면들을 이미지화하거나 오브제 자체가 비유가 되어 작품이 전달하려는 정서를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대작을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으로 원주 박경리 문학공원의 ‘문학의 집’이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은 무척 원작에 충실하면서 문자가 아닌 이미지화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작품세계를 미적으로 잘 압축하여 이용자들에게 비유를 통한 상상의 재미, 텍스트에 대한 감각적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함께 소설 『토지』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미적 경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하는데 원주의 박경리 문학공원이 관람객을 전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에 대해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 소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저 박경리라는 대작가의 유품과 관련 자료의 전시가 아니라 작품을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시기획자의 고민과 예술적 각색,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은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과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시민 참여 강좌와 시낭송 프로그램, 청소년백일장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안에서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학관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돌아가신 작가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념할 것이고 왜 기념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중과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지와 노력이 전시에도 드러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알찬 구성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문학공원의 아쉬운 것은 고정적인 시설에 갇혀 좀처럼 새롭게 재구성하기 어려운 전시실이라든가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작위성이다. 앞서 지적했듯 고장 난 모니터가 있어도 이들을 썩은 거대한 유리관 뚜껑은 이를 철거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애초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전시공간이었다 할 수 있다. 참신한 기획의 책 전시 역시 세심하고 적절하게 잘 선별된 장면들이지만 이 장면들이 ‘문학의 집’이 개관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전시의 고정성, 정형성을 만들어 새로운 변화나 재미를 만드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토지』라는 작품에 대한 전시는 무척 미학적으로 기획하고 대중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기획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작가에 대한 전시 스토리텔링은 연대별 사진의 전시와 작가의 유품들 전시가 각각 이뤄지는

방식으로 무척 병렬적이다. 근처 원주의 토지문화관과 멀리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으로 작가의 유품들이 흩어져 있어 각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한정적이거나 그저 보관하고 보여주는 식의 전시에 그쳐 작가 개인의 삶의 여정과 그의 유품, 시대적 조건과 작품 창작의 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각각의 유품과 작가의 삶을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무엇도 없이 다만 작가의 유품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저 전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가의 생애사를 살피는 부분 역시 시대의 격랑을 온몸으로 부딪혀 살아온 작가의 삶을 그의 사진 몇 점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작가라는 인물이 어떤 의미의 격랑을 겪으며 어떤 작품을 창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다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되어 전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작가의 위대한 삶과 문학적 성취를 잘 전달하기 위한 보다 스토리에 입각한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사진3) 박경리 문학공원 전경<sup>10)</sup>(직접촬영)

10)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평사리마당, 평사리마당 중앙에 위치한 연못과 분수, 그리고 홍이동산

박경리 문학공원 ‘문학의 집’ 전시가 효과적인 비유법으로 압축과 이미지화에 일정한 미적 성취를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이라면 문학공원의 스토리텔링은 비유와 상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의미 부여의 작위성이 드러나는 면이 있다.<sup>11)</sup> 공원은 ‘평사리마을’-‘홍이동산’-‘용두레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설 『토지』가 탈향에서 귀향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인 것처럼 각각의 공간에서 소설 『토지』 속 공간의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상징하면서 이용자가 납득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진3>을 보면 왼쪽 위의 커다란 평상모양의 대리석 조각 3개가 평사리마을을 상징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사리마당의 수로는 ‘섬진강’을 형상화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사진은 ‘홍이동산’으로 문학공원 내 나지막한 동산을 어린이 이용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면서 소설 『토지』 속 평사리와 용정을 잇는 어린 인물들 중 ‘홍이’를 내세워 ‘홍이동산’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사진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하여 사진 속 오브제와 공간을 비유로 이해하고 미적 체험을 하기에 해당 오브제와 공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형태의 공간에 앉을 수 있는 평상모양의 오브제를 두었다고 해서 이것이 즉각적으로 마을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잘 가꾼 공원의 수로와 섬진강 사이의 공통점은 ‘물’이라는 소재 외에 같은 것을 찾을 수 없기에 이런 식의 의도와 이름 붙이기는 낯설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홍이동산’의 경우,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을 의도했다지만, 과연 그곳이 현재 이 공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 세대를 잇는 의미에서 공간을 이어주는 길목에 ‘홍이동산’이 있는 것은 그럴법한데 애초 의도가 이 공간에서 제대로 구현

11)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예니, 「소설 『토지』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 『돈암어문학』 제34집, 2018.12, 165-169쪽.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첫 의도가 무색하게 이름과 장소가 어긋나는 현상이 발견된다.

## 2) 로컬리티와 관람객의 미적 체험 : 박경리 문학관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은 평사리 들녘의 부부송을 전경으로 드라마 <토지>의 촬영지를 품고 있다. 소설 『토지』의 주요배경인 평사리 마을을 구현해놓은 이곳은 하동군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문학관과 촬영지를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학관의 공간스토리텔링이 단순히 문학관 내부의 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풍경까지를 포괄하는 의미 이기에 하동의 문학관 같은 경우,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자연풍경과 촬영을 위해 건설해놓은 평사리 마을의 재현 모습 등은 많은 이들에게 소설 『토지』의 시공간으로 들어선 듯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킨다. 바로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압축과 비유 없이 그 자체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건이라 하동군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학관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외적 조건이 훌륭한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전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에 전시된 작품 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으로는 소설 『토지』의 등장인물들을 소묘한 단체 인물화나 주요 인물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놓은 관계도가 있는데, 이는 원주나 통영에는 없는 하동 박경리 문학관만의 전시물로 무척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사를 이미지화하는 미적 도구로 소설 『토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소설 『토지』를 읽는 방법으로 제안한 최유찬의 빅뱅 이론<sup>12)</sup>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특

12) 최유찬, 「빅뱅이론과 생명사상으로 읽는 『토지』」, 『월간 말』, 1996. 12.

징으로 한쪽 끝에서 상영되고 있는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 완결 기념 TV인터뷰<sup>13)</sup> 영상 상영이라 하겠다. 이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작가가 가진 고뇌와 사상 등을 생전 작가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무척 생동감 있는 전시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의미 있는 전시물과 훌륭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문학관은 지식 나열적인 전시 스토리텔링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작가에 대한 기념방식이 원주의 ‘문학의 집’에서 보여줬던 작가의 생애사 전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작가의 옛 사진들이 시기별로 제시되면서 아무런 설명이나 당대 시대적 조건에 대한 통합적 설명 없이 사진만이 전시되어 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작가의 무엇을 기념하려 했는지 컨셉이 드러나지 않으니 문학관 이용자들은 그저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사진4) 하동 박경리 문학관 내부(직접촬영)

이렇듯 <사진4>처럼 시기별로 작가의 사진을 전시하는 방식이면, 이 사진들을 통해 작가를 처음 만나는 관객들은, 특히 학령기의 학생들은 이

13) MBC I&C [편], 『작가 박경리 :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 제1부-3부 [비디오 녹화자료]』, 2004.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될까. 이 전시가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 이런 전시는 작가의 무엇을 기념하려 하는 것인가. 이런 방식의 나열적인 전시는 작가의 소설 『토지』가 실린 잡지와 신문 자료, 작가의 인터뷰 기사 스크랩, 그리고 작가의 유품 전시 등에서도 확인된다.



(사진5) 박경리 문학관 내부 유리관 속 전시(직접촬영)

<사진5>를 보면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소설 『토지』가 연재되었던 잡지들이 나열되어 있고, 사이사이 작가가 인터뷰했던 신문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유리관 아래 보관되어 있다.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의미 있고 작품의 수집과 보관은 문학관의 기능 중 중요한 하나겠지만 여기에 어떤 설명의 알림판 하나 없이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이용자에게 어떤 스토리텔링도 하기 어렵다. 특히, 전시되어 있는 신문기사의 경우, 거리도 멀고 활자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 실정이다. 과연, 이를 통해 관객과 무엇을 소통하고자 의도했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원주의 ‘문학의 집’에서 ‘<토지>에 들어서다’라는 컨셉의 전시가 소설 『토지』의 주요장면을 중심으로 압축과 비유를 통해 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스토리텔링했다면, 원주의 ‘문학의 집’ 2층 작가에 대한 전시나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전시는 작가나 작품, 그 무엇에 대한 일정한 주제 없이 지식 나열적 전시, 자료 제시형 전시에 머물러 이용자와 성공적인 소통을 만드는 데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문학관이 한 작가와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념하려면 가진 자료를 모두 보여주고 전체를 모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연구되었던 것처럼 일정한 테마에 따라 이용자를 고려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정된 전시유리관과 가진 모든 것을 전시함으로써 문학관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시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좀 더 시기별, 주제별 기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의 전시장이 필요하고, 상시전시와 기획전시가 분리되는 방식, 압축과 집중을 통해 보다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이용자들이 작가와 작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미적 체험을 다각도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전시관과 함께 위치한 ‘최참판댁’, ‘평사리 마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한 공간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현재는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시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노스텔지어를 느끼는 수준에서 소설『토지』의 배경을 직접 제시하는데 머물러 있다. 이는 하동 박경리 문학관만이 가진 좋은 조건이면서 이 조건은 동시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좀 더 스토리텔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6〉 최참판댁 아래 위치한 평사리마을과 알림판(지적촬영)

〈사진6〉은 드라마 <토지>의 촬영지로 현재도 하동군이 관리하면서 소설『토지』의 스토리텔링을 공간적으로 재현한 곳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의 공간성은 제작된 옛 가옥들과 그 가옥 앞에 놓인 ‘알림판’이 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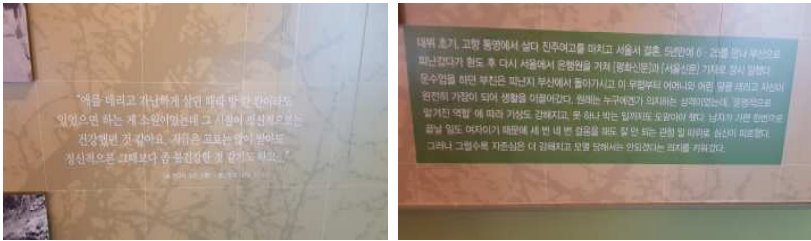
인 상황이다. ‘알림판’에는 누구의 가옥이며 그 인물은 어떤 성정의 사람으로 어떤 사건에 등장한다는 식의 간단한 정보만이 전달되고 있다. 가끔 주요한 인물의 집 앞에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사진으로 제시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가옥과 알림판이 특별한 기획 없이 제시되었다 할 수 있다.

하동 박경리 문학관의 특징은 바로 소설 『토지』의 중요무대가 되고 있다는 공간성이다. 그렇다면, 박경리 문학관은 이에 초점을 맞춰 작품 『토지』에 집중하여 작가가 어떤 시대적 조건, 어떤 개인적 사정 속에서 소설 『토지』를 완성했는지, 소설 『토지』 안에 담고자 하는 사상과 주제는 무엇이며 이 주제들은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했는지를 중심으로 테마를 잡고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간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평사리마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가옥들의 집합, 인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제시를 뛰어넘어 구한말로부터 식민지 시기 이 땅의 농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고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농촌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지리산을 둘러싼 동학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서사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 되는지 주제를 정해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고, 압축과 미적 체험이다. 방대한 소설 『토지』의 모든 서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들의 목표는 더 많은 이용자와의 소통 확대에 있을 것이다.

### 3) 작가의 생애와 지역 스토리텔링 : 통영 박경리 기념관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은 원주, 하동에 비해 뒤늦게 건립되었다. 2008년 작가 타계 후, 고향인 통영에 묘소가 마련되면서 통영은 2010년에 박경리 작가를 기념해 박경리 기념관을 완공했다. 통영 박경리 기념관의 건립목적은 홈페이지 기념관 소개에 따르면 “박경리 선생의 고향으로 선생

문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한 고향 통영을 소개함으로써 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sup>14)</sup>는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박경리 기념관의 주제는 작가와 ‘통영’이라는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문인들, 예술가들이 태어난 곳으로 ‘통영시’를 소개하는데 고향이 통영인 박경리도 포함된 경우라 하겠다. 이런 건립의 목표는 박경리 기념관의 전시 스토리텔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작가가 나고 자라서 다시 통영에 묘소가 정해지기까지의 작가 생애에 대한 전시이다. 작가 생애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패널은 그 어느 전시관보다 입체적으로 스토리텔링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라 하겠다.



(사진7) 박경리 기념관 내 작가 생애 패널(직접촬영)

<사진7>에서 보면 이전 원주와 하동의 작가 생애가 작가가 남긴 작가의 옛 사진들을 시기별 순서에 따라 전시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된 것에 비해 통영의 작가 생애 패널은 시기 순서에 따른 작가의 생애사와 함께 사이사이 사진 자료와 당시 작가가 남긴 말과 글, 그리고 큐레이터의 설명글 등이 짝막하게 함께 제시되고 있어 작가의 생애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한 작가를 기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상화하지 않고 한 작가의 명과 암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을 함께 이해하고 자료를 예단 없이 제시하는 것이다. 큐레이터의 의

14) 통영시 박경리 기념관 <https://www.tongyeong.go.kr>

도가 숨겨지고 당대 사회적, 역사적 조건과 함께 작가에 대한 자료가 제시 될 때 문학관 이용자는 보다 자신이 다각도로 자료를 종합하여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유로의 경로를 잘 기획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8〉 박경리 기념관 내부 벽면(직접촬영)

그런 의미에서 <사진8>에 나와 있듯 박경리 기념관의 전시는 작가 생애와 관련한 패널만이 아니라 전시 방향에 따라 시기별로 작가가 문학과 작품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이 짧게 제시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작가의 문학관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히 육필원고나 작품이 실린 책들의 전시, 작가가 나온 신문 스크랩과는 다르게 기획자에 의해 큐레이션 된 문장들이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시선을 끈다. 이렇듯 이용자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 철저히 큐레이터에 의해 선별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이용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문학관에 비해 박경리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적은 탓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로 자료를 니열적으로 전시하는 대신 패널을 이용한 작가의 글과 정보를 보다 선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경리 기념관의 특징 중 하나는 ‘통영’이라는 공간성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박경리 기념관은 원주, 하동과

다르게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소설 『토지』 외에 다른 많은 작품들을 고르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소설 『김약국의 딸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소 돌출적인데 박경리 기념관에는 소설 『김약국의 딸들』 대한 패널과 영화 <김약국의 딸들>의 패널이 전시되어 있고, 소설 속 통영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아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작품보다 소설 『김약국의 딸들』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통영’을 강조하고 ‘통영’이라는 로컬리티로 작가를 해석하려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패널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소설 『김약국의 딸들』이 갖는 향토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테마를 잡고 스토리텔링한다는 것은 이렇듯 어느 한 부분이 더 강조되어 돌출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 박경리 기념관이 ‘통영’이라는 장소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소설 『김약국의 딸들』뿐만 아니라 소설 『파시』나 단편 속에 등장하는 ‘통영’, 그리고 소설 『토지』에 나오는 ‘통영’을 포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통영’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터뷰를 보태고 작가에게 있어 ‘통영’의 의미, 탈향과 귀향의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한말 통영의 모형이 있는 자리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소와 인물, 그리고 사건이나 물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당대 사진 자료 등이 함께 배치될 수 있었다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은 자료가 되었을텐데 모형이 차지하는 큰 면적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적거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 모형이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약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가의 묘소가 있고, 넓은 부지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전경에 둔 기념관으로 다른 문학관에 비해 대표작 『토지』 외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전시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됨에도 이런 박경리 기념관만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주제의식과 이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해 아쉬운

상황이다. 강조점이 ‘작가와 통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박경리 기념관만의 장점들을 살려 보다 개성 있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은 가능하다는 생각한다.

#### 4. 문학관과 문학

문학관의 존재이유는 결국 ‘문학’에 있다. 이때 문학은 과거 종이책으로 출판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다. 문학이 변화된 사회, 새로운 생태계에서 어떻게 대중과 만나 소통하며 그 영역을 넓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문학관’이 담당할 한 역할이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학관이 지역의 홍보나 작가의 이상화에 머물지 않고 ‘문학’이 중심에 놓인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원주, 하동, 통영에서 같은 작가, 같은 작품으로 공간스토리텔링을 전시하고 있는 문학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문학관이 갖는 개성과 강조점이 달랐는데,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 위원회나 센터를 통해 그 차이와 개성이 더욱 드러나고 부각 되도록 조율하고 상호 교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문학관의 전시 스토리텔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람객에게 어떤 주제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공간 스토리텔링을 기획할 수 있는가 역시 문학관의 스토리텔링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단순히 자료의 나열적 제시나 지역의 문인과 작품을 극찬하는 것을 넘어 문학관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에게 인문학적인 성찰과 미적 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테마’를 통해 문제의식이 정확히 전달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열려 있어야 한다. 작가 중심인 문학관 스토리텔링, 작품 중심인 문학관 스토리텔링, 대표작 외에

여러 작품에 대한 전시 스토리텔링,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변환에 따른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와 주제로 변화된 상황과 대상 관람객에 맞춰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테마전시’의 기획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설전시, 기획전시,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문학관이 기획할 수 있고, 문학관마다 달리 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학이 중심에 놓이되 전시를 기획하는 전문 인력, 즉 큐레이터의 역할이다. 작가의 방대한 작품과 지금껏 쌓여온 연구 성과가 백과사전식 나열로 전시되는 것을 피하고 꽤널 중심의 문자 의존적인 소통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관에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를 부여할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면에서도 상설전시회를 벗어나 적은 예산이더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 소규모 전시가 필요하고 이런 기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유연하게 구획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의 이동성이나 변형 등이 가능한 형태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 당장 시급하면서 가능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각 지역 문학관들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문학관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홈페이지가 문학관의 스토리텔링과 이용자들을 잇는 가상공간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바로 홈페이지라는 인터넷 공간에서부터 문학관을 활용한 공간스토리텔링은 가능하다.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자유롭게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런 IT의 활용을 통해 전시공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 큐레이션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 제공이나 입체적 스토리텔링의 구현은 발상의 전환과 효율성만을 제고 해도 가능해진다.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면, 작가와 작품을 독자/이용자와 잇는 문학관으로서 새로운 공간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예니, 「소설『토지』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 『돈암어문학』 제34집, 2018.12, 157-178쪽.
- 나윤지, 「한국 근현대문학의 가치계승을 위한 문학관 운영방안연구」, 고려대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6, 1-96쪽.
- 박효주, 「박물관 등록제도와 비교를 통한 문학관 등록제도 검토」, 『호남학』 67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회, 2020.6, 30-33쪽.
-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1-54쪽.
- 오탈영, 「문학관의 공간 조직화와 수행적 신체」, 『한국문학과 예술』 20,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6, 145-173쪽.
- 이승윤, 「문학관/문학공간의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기획의 사례 연구—박경리의 『토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48, 대중서사학회, 2018, 9-34쪽.
- 조진아, 「문학관의 공간스토리텔링 연구」, 중앙대학교 공연영상학과 미디어스토리텔링전공 석사학위논문, 2020, 1-133쪽.
- 최유찬, 「빅뱅이론과 생명사상으로 읽는 『토지』」, 『월간 말』, 1996. 12, 206-211쪽.
- 최호근, 『기념의 미래』,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7-463쪽.
-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249쪽.
- MBC I&C [편], 『작가 박경리 :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 제1부-3부 [비디오녹화자료]』, 2004.

■ Abstract

A proposal about the storytelling of literary house as  
a cultural content

- Based on the way to celebrate the writer Park Kyung-ri  
and her novel ‘Toji.’

Kim, Yae-ni  
Sungshin Univ.

For real celebrating the writer and achievements beyond perfunctory commemoration, it is necessary to stop idolizing certain writers and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storytelling of the past, which only emphasized locality. That is why the spatial storytelling of existed literary houses needs to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literature. Because of that reason, I analyze Park Kyung-ri and her novel ‘Toji’ literary house storytelling that is being celebrated in several places.

‘The House of Literature’ in Wonju’s Park Kyung-ri Literature Park shows successful achievements effectively in delivering a long novel to users by figurative visualization, selections, and summarization in planning the storytelling of the novel ‘Toji,’ and providing unique esthetics experience of exhibition storytelling.

However, it is difficult for users to stimulate interest in the writer and her works because the spatial storytelling to exhibit the writer’s life and keepsake ends up listing materials.

Park Kyung-ri Literature House in Hadong has a variety and

meaningful materials that only Hadong can have. However, it also has a problem to limit its effects because it has not explained the meaningful materials in general along with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the time. In the case of Hadong, it has the best condition for the spatial storytelling shown by the literature house's external environment due to having the actual background of the novel 'Toji,' and the filming location of the drama 'Toji.'

Lastly, in the case of Tongyeong's Park Kyung-ri Memorial Hall, the difference from other literary houses is to introduce and exhibit Park Kyung-ri's other works, including her representative work 'Toji,' because of aiming to highlight Tongyeong rather than other literary house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Daughters of Kim Yak-guk" becomes increasing for emphasizing the spatial storytelling of Tongyeong, and it causes the overall exhibition storytelling has become protruding and awkward. In my opinion, if the theme is limited to writers and Tongyeong, it could show a more effective spatial storytelling.

What the literary house celebrates is the same as what it tells users about the writer and works. The planner should have professional knowledge of delivering the responses to users by focusing on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at is why it needs a curator, has to have the theme, and directs the spatial storytelling flexibly by dividing permanent exhibition and special exhibition.

Key words : Literary House, Memorial Hall, Park Kyung-ri Literature Park, Park Kyung-ri Literature House, Park Kyung-ri Memorial Hall, Toji Literary House, House of Choe Champan

투고완료일 : 2020. 11. 25. 심사완료일 : 2020. 12. 16. 게재확정일 : 2020. 12. 17.